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달러 약세와 매도 우위 수급 여건에 하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383~1,395원

■ 미 재무부가 국채 금리 조정 의지를 내비치면서 장기물 금리가 급락했음. 이에 달러인덱스가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도 다소 완화되었음. 수급 측면에서는 달러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서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오늘도 전반적으로 무거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업체 결제수요를 비롯한 저점 매수세 유입에 따라 하단은 지지받을 전망

■ 전일 동향 : 19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23.4원 급락한 1,389.1원 마감 장 초반,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 출발. 그러나 역내외 달러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급락 전환, 1,400원을 하향 돌파해 1,397.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소식에 달러 약세 심화되자 1,390원선 아래로 추가 하락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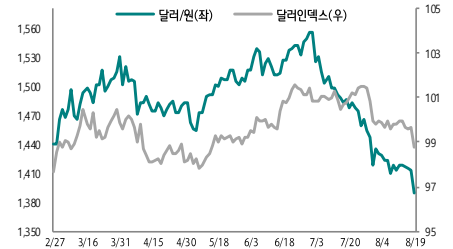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 재무부의 장기물 바이백 규모 확대 발표로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달러도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98선으로 급락
- (유로-달러) 유로존의 7월 CPI가 전년대비 2.9%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ECB의 매파 기초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되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임
- (달러-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 내 금리인상 의견이 확인되었으나, 미 재무부의 국채 금리 조절 의지에 미-일 금리차 우려가 완화되면서 엔화는 강세로 전환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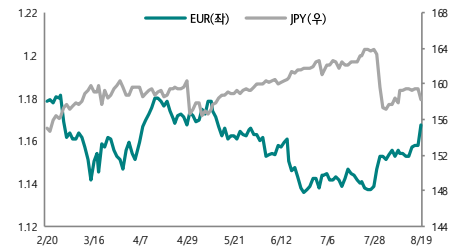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3%를 상회하며 '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10년물 금리도 4.7%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양상임. 이는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더불어,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 및 대규모 국채 발행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통상적인 고금리 환경은 달러 강세를 자극하는 요인이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금리 상승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음. 여기에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와 수급 요인이 더해져, 전일 원화 환율은 1,400원을 하향 돌파했음. 하지만, 문제는 장기금리를 높은 수준에 고착화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임. 간밤 미 재무부의 장기물 바이백 규모 확대 발표에 장기금리 상승세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재정 적자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단기만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가까움. 결국 고금리 압력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 여건 전반이 긴축될 수 있으며, 원화 환율의 변동성 역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13.0	1,413.8	1,385.2	1,388.4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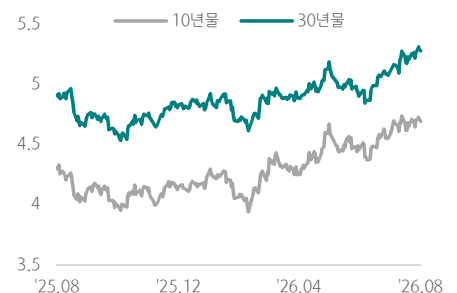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77	158.16	6.7305
전일대비	+0.0101	-1.37	-0.0155
재정환율	1,624.55	877.59	206.70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0:30	호주 7월 실업률	4.4%	4.4%
15:00	독일 7월 PPI(YoY)	0.6%	-0.3%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0k	209k

미 국채 장기금리 추이



자료: SEIBRO